

# 기업에 대한 진화적 접근 방법의 의의와 전망\*

고형면

## [국문 초록]

이 글은 기업에 대한 신제도주의와 진화 제도주의의 학문적 성과를 검토한 뒤, 특별히 진화적 접근법과 사회학 이론의 접목을 통해 보다 발전된 기업론, 제도이론 구축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코즈(R. H. Coase) 이래로 거래와 교환, 계약과 기업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였고 이를 통해 재산권 경제학, 거래 비용 경제학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재산권이나 거래 비용에 대한 논의에 매몰됨으로써 정작 설명의 대상인 기업이나 제도를 지나치게 내부적으로 그리고 정태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보였다. 기업의 내외부적 과정과 여타 제도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면서 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화 제도주의로 나타났다. 루틴, 학습, 대안에 대한 탐색과 돌연변이 같은 논의들은 기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주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회학과의 결합을 통해 설명력을 높일 가능성도 만들어냈다. 따라서 양자의 진화적 접근법을 매개로 기업이나 경제 현상에 대한 보다 발전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 단어: 신제도주의, 진화 제도주의, 진화론적·사회학적 기업이론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01602). 논문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해주신 익명의 논평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I. 머리말

주류 혹은 정통 경제학의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가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비판의 핵심은, 그러한 가정에 내재된 인간의 ‘물질주의’나 ‘자기 본위성(egotistic)’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 가정 속에서 완고하다 싶을 정도로 지속되는 지식과 합리성의 무제한성과 이에 결부된 과도함에 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극대화하길 원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결코 극단적인 과잉 단순화로 볼 수 없다. 과잉 단순화의 문제는 오히려 인간이 극대화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에 있다.

마찬가지로 주류 경제학의 기업론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부(wealth)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검토됐음에도, 생산량이나 가격의 산정 같은 기업 활동을 일관된 혹은 정확도 높은 기준을 통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에 비판받았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공영 영리기업, 정부의 규제, 비영리 기업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다. 주류 경제학은 특별한 기업 조직 혹은 구조들이 성장·생존·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매우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De Alessi·Staaf, 1989).

기업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의 정통 경제학 대부분에 족쇄를 채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과도한 추상수준도 끌어내려야 했다. 즉 고전파나 신고전파의 연역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들을 역사적·사회적·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 전환이 일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특히 경제

학과 사회학의 분업에 따른 양대 학문의 괴리와 편향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Swedberg, 1990).

모델 지향적인 경제학과 현실 지향적인 사회학은 1970~1980년대를 거쳐 급격히 수렴되면서 색다른 접근이 이루어질 풍토를 마련했다. 복잡한 담론 중심적인 사회학적 편향이나, 수학적 공식 중심의 경제학적 편향 모두가 견제 받았다. 대신에, 합당한 기대와 평가를 산출하는데 따르는 인간적 한계, 목적의식적인 합리성의 제약이나 제한성, 기회주의의 가능성 등이 훨씬 더 주목받았다. 사회학과 경제학의 전향적 수렴을 통해 얻어진 사회경제적 인간(*homo socio-economicus*)이라는 전제, 관계성을 고려한 경제 현상에 대한 역사적·경험적 논의의 중시, 현실적 분석 대상으로서 계약과 같은 제도의 강조를 통해 새로이 등장한 접근법이 바로 신제도주의이다.

신제도주의 내의 주요 이론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sup>2)</sup> 자체적으로도 많은 사상적 전환과 이론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진화론적 접근법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장 야심찬 연구경향을 보여 왔다. 진화적 이론 분파의 가장 유력한 성과들은, 진화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과 이를 수용한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론에 반영됐으며, 이들 모두는 제도에

- 
- 1) 이를 테면, 경제학은 완벽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성이라는 가정 때문에, 사회학은 관계의 여러 특성들을 살피지 않는 모호한 사회화(*socialization*) 개념 때문에 계약과 같은 현상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의 대다수는, 인간이 사회와 조직 속에서 맺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관계의 응집체인 계약을 중심적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2) 신제도주의는 경제학, 조직 이론, 정치 과학, 공공 선택론, 역사학, 사회학 등에서 여러 형태로 제기돼 왔다. 이들 모두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원자론적 설명방식을 취하면서, 공통된 신념이 제도적 장치·사회적 과정을 지배한다는 주장에 지극히 회의적일 뿐, 별다른 합일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DiMaggio·Powell, 1991). 이 글에서는 주로 기업에 관한 경제학과 사회학의 신제도주의에 논의를 한정시켜, 특히 진화적 관점이 지닌 독특한 설명력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대한 진화 이론 혹은 진화적 제도주의(evolutionary institutionalism)로 총괄됐다(송현호, 1998).

기업에 대한 분석을 주된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신제도주의는 그간, 행위나 문화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여러 경제적 주체들에 대해 얼마나 간섭하는가를 밝혀보려는 의지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진화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가 그간 의존해왔던 인간 행위에 대한 가정과 기업에 대한 설명방식을, 제도 및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가운데 맺은 결실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신제도주의의 출발점이 된 중추적 논의 대상과 소재를 먼저 살펴보고, 이후 진화적 접근법이 보이는 사회학과의 인접성 및 보완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들 사이의 의미체계로부터 장기적인 조직구조변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학적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만 기업에 대한 진화론적 작업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 II.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기업이론

### 1. 코즈의 문제 제기

경제학 내에서 신제도주의의 실질적인 효시는,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Coase, 1937)이라는 코즈의 논문에 있다. 코즈는 주류 경제학에 반발하여 기업의 현실 경제적 측면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해,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연구 주제로 삼았던 코즈는, 가격 메커니즘이 결코 고립무원

한 상태 혹은 공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경제학자들이 가격 메커니즘이나 기업(가)를 생산요소들의 조율 도구 정도로 여기는 태도를 비판한다. 또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에 그러한 몰이해가 생겨났다고 주장한다(Coase, 1937).

모든 교환적 거래에는 계약<sup>3)</sup>이 수반되는데 이때에도 일정한 비용이 지출된다. 계약은 교환에 의한 거래를 즉각 기업적 과정으로 체계화시키는 조직화의 계기이다. 기업은 결국 가격 메커니즘의 활용, 교환적 거래의 일원화, 계약에 의한 조직화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 결과물이다(Coase, 1937). 코즈는,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또는 다양한 시장 거래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거래 비용으로 정의 내린다(Coase, 1937; 1960). 계약의 사전적 체결·감시 그리고 사후적 행사에 드는 비용들로 구성되는 거래 비용은, 개개인이 경제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하고 스스로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한다(Eggertsson, 1996).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코즈의 거래 비용 개념은 이제 거래의 대상인 자원이나 생산요소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권리문제에 적용된다. 자원과 생산요소들은 시장에서의 교환적 거래가 수행되기 이전에 이미 어떤 권리로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코즈가 보기에, 자원과 생산요소의 본질은 그것이 누군가의 권리라는 데 있다. 권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 혹은 제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보장되지 못한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권리가 사회화, 제도화된 현대적 결과물이 바로 재산권이다. 따라서 거래나 거래 비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계약은, 간단히 정의내리자면,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한 상호 책임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루려는 상호적 거래가 공식화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공식화된 결과물로서의 계약은 다른 한편으로 법적인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을 특징으로 한다(Furubotn·Richter, 1991).

교환적 거래나 이에 수반되는 비용 그리고 기업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로써 코즈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이 신제도경제학의 또 다른 주요 의제로 설정된다. 물론 계약, 교환, 거래 비용, 기업은 흔들림 없이 코즈와 신제도경제학 내에서 주요한 분석적 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공로와 색다른 연구과제들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학적인 비용 원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으로써, 코즈는 스스로의 이론적 노력에 흠집을 내기도 한다.<sup>4)</sup>

이후 코즈의 연구가 발전해가는 가운데, 특별히 신제도주의적 지향을 가장 잘 드러내고 동시에 일종의 헤게모니를 형성한 3개 분과가 생겨났다. 이들이 바로 재산권 이론, 거래 비용 경제학, 대리인 이론이다. 특히 재산권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은, 기업 혹은 제도적 구조와 경제행위 사이의 상관성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자 애써왔다 (Furubotn, 1990).

자본주의 기업과 이를 둘러싼 제도들에 대한 분석이 본격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던, 재산권 이론과 거래 비용 경제학에 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다.<sup>5)</sup> 코즈 이후 가장 발전된 형태의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이 이들

---

4) 코즈는, 국가가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 피구(A. C. Pigou)의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정부의 간섭은 실패로 끝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우 협소한 결과만을 낳을 것으로 여긴다. 피구의 오류는, ①외부성에 내재된 호혜적 본성(reciprocal nature)을 무시하고, ②시장이 외부성 문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외부성 문제를 해결코자 누군가의 손해를 해소시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해를 입는다는 게 코즈의 논리이다. 이때 코즈가 가장 적은 비용(the least cost)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용이나 시장원리를 배제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의 빌미가 생겨난다.

5) 앞의 두 이론에 비해 대리인 이론은 조직이나 기업 분석을 체계적 연관성 하에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리인 이론의 이러한 약점은, 3대 신제도주의 이론의 상당한 유사성 및 상호보완성 탓에 은폐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Williamson, 1990).

을 통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단점의 이해를 통해 대안적 기업이론의 이해에 중요한 실마리들도 검토할 수 있다.

## 2. 재산권 분석에 의거한 기업론

계약을 둘러싼 관계를 놓고 볼 때, 생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직화 될 수 있다(Pejovich, 1990). 첫째는 시장을 통한 계약으로, 각 생산요소 소유자들과 일대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엔진 제작자, 차체 제작자, 판매 대행자와 각각 계약하는 식이다. 둘째는 기업의 조직화로서, 첫째 경우의 모든 소유자들을 피고용인으로 계약, 채용하는 것이다. 기업 조직화를 위해 고용주와 생산요소 소유자간에 계약과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곧 재산권의 이전 및 재조합 과정이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기업의 핵심 업무는, 자체의 재산권 구조를 정교하게 확립하여 생산과 거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제하는데 있다(Furubotn, 1990). 이는 재산권 이론이 기업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 틀이다. 기업은 첫째, 재산권에 기초한 계약과 거래 비용을 통해 그 구성원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둘째, 확보된 구성원들을 내적 유인을 통해 다시금 해당 기업이 근간으로 삼는 계약 장치 혹은 재산권 체계 내에 계속해서 결집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 소유주(기업가)가 기업 내에서 정당한 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도 보장해야 한다.

재산권<sup>6)</sup>에 버금가는 법적, 제도적 실체로서 기업은 생산요소 소유자들 간의 협력적 계약을 통해 결성된다.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공동

---

6) 재산권 이론에서 재산권은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스스로의 자원에 대해 갖는 사용권(Alchian, 1965; De Alessi · Staaf, 1989) 혹은 사용·취득·양도에 관련된 인간적 권리 혹은 권리의 다발(the bundle of rights)로 규정된다(De Alessi, 1990).

합의이지만 각각의 주관적 비용 계산에 의해 교란될 위험도 있다. 이 위험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뿐만 아니라 계약이 수립된 이후에도 항상 표출될 수 있다. 재산권 이론은 예상치 못한 계약의 불이행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위험을 기회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닌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Grossman·Hart, 1986).

전 계약(pre-contractual)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는 사실 기업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일단 어떤 생산요소(혹은 자산)가 도입되면, 그것은 사용자(고용주)에게 자산특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sup>7)</sup> 이때, 자산 사용자가 자산 소유자(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몫이 다소 줄더라도,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자산 소유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경쟁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각 자산 소유자들의 계산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이 교란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수익과 비용을 근거로 한 장기 계약이 필요해진다. 이는 곧 수직 통합된 조직 즉 기업의 탄생이자 소유권의 통합을 의미하며, 전 계약적인 교섭 비용이 절감된 결과이다.

내적 계약들이 유효적절하게 이행되게끔 하려면, 기업은 고용계약에 담긴 명령권의 이용비용이 기업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게끔 해야 한다. 즉, 계약과 거래에 투입된 자원들에 대한 사용권이 기업 내의 권위적 의사 결정 체계로 이양되어야 한다(Furubotn·Richter, 1991). 반면, 계약 이후 기업의 피고용인들은 권위의 이양에 따른 거래 비용에 대응될 만한 자기이익을 기대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양한 기회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업의 또 다른 본질, 즉 계약

---

7) 재산권 이론에서는 이를 전유 가능한 특별 준렌트(appropriable specialized quasi-rents)라고도 한다.



당사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적 선택지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업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약이 이행되게 만들 암묵적 메커니즘을 강구해야만 한다. 암묵적 계약 강화 메커니즘이 개입해야 할 우선적 대상은 바로, 생산성과 보상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협업적 기업 활동 탓에, 각 성원의 기여도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 개별적으로 혹은 분리 가능하게 반영되지 않으므로, 개별 성원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 이로 인해 각 구성원들이 해태(shirking)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재산권 이론은 기업 조직화 이후 생겨나는 기회주의적 해태 행위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과 감독자(monitor)의 배치를 통해 해결된다고 설명한다.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노동시장에 준비한 상황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생산성과 이에 대한 보상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태 행위가 언제·어디서·어떻게·누구에 의해 저질러지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며, 해태 행위로 누군가가 대체됐다 해도 새로운 참여자가 해태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은 감독자를 고용해 그에게 구성원들을 고용·해직·감독할 권리를 준다. 감독자는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정도를 확인하는 일을 전담함으로써 해태 행위를 견제한다(Alchian·Demsets, 1972). 그런데 전문 감독직은 기업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즉 감독직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역시 시장 경쟁에 맡겨 해결할 수 있지만, 앞서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전문 감독직의 특성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특수한 이익을 활용한다.

기업에 의해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사후 조정되는 과정

에서 구성원들의 소유권이 전문 감독직에 일괄적으로 이전 및 취합된다. 이때 생겨나는 일종의 잔여적 이익이 전문 감독자만의 순이익이 되며, 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한이 기업에 의해 보장된다. 잔여적 이익의 배타적·독점적 소유권은 역으로, 특별한 계약적·조직적 장치 없이도 전문 감독자들의 업무와 행위를 감독하는 도구가 된다(Alchian·Demsets, 1972).

이처럼 재산권 이론은 생산요소 투입을 위한 계약의 조직화와 이에 관련된 사전적, 사후적 특성을 기업의 본질로 삼는다. 기업의 자원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느냐에 의해 기업의 성과나 생존이 좌우된다. 생산성, 보상, 해태 행위의 측정, 시장 거래 비용을 중시하지만, 재산권 이론은 기업 내에서 (감독직 같은) 권력 중심부가 발전하는 것에 더 주목한다. 그리고 이것이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본다. 이때 기업은 협력적 생산에 활용되는 특수한 정책화 기구(policing device)나 마찬가지로 된다. 이 기구의 활용을 위한 거래 비용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또 다른 계약적 장치들이 도입된다.

그러나 재산권 이론은 이러한 문제 모두가 반드시 기업의 형태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산권 이론에서는 거래 비용과 이를 가장 잘 소화시켜낸 계약 체결이 최우선적인 관심사일 뿐이다(Alchian·Demsets, 1972). 결국 재산권 이론 내에서 기업은 재산권 행사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인에 머물고 만다.

### 3. 거래 비용 경제학의 기업론

경제가 제도적 체계임을 강조하는 거래 비용 경제학은, 코즈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된 1970년대에 윌리엄슨이 일궈낸 연구 성과에 의해

그 이론적·경험적 기반이 확고히 다져진다. 윌리엄슨은 코즈의 막연했던 거래 비용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계약의 탐색·체결·이행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측정·감독·강제화 비용까지 포괄하는 거래 비용의 절감 혹은 경제화(economizing) 개념을 착안해낸다(Williamson, 1975).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제도인 계약·조직·기업의 핵심적 특성은 거래 비용의 경제화라는 목적달성에 있다.

윌리엄슨은 불연속적인 시장 교환을 한 축으로, 집중화된 위계 조직인 기업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거래 비용을 비교한다. 물론 양 방식 사이에 있는 수많은 혼합형과 매개적 양식들의 존재를 간과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윌리엄슨은, 사전적·사후적 거래 비용 경제화를 위한 통치 구조로서 기업(의 내적·위계적 조직화)이 제도분석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한다. 제도로서 기업을 분석하기 위한 일차 과제는, 거래 비용의 경제화를 통해 기업이 내적인 통치 구조(governance structure)와 위계적 조직화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사전적 거래 비용은 계약 초안 작성, 이에 기초한 세부적 교섭, 합의 사항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요구되는 비용이다. 사전적 거래 비용에는 다수의 임의성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예비적 인증과 합의에 의한 적절한 대응 방식이 반영된다. 그런데 개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제한적 합리성, 기회주의, 정보 비대칭성 혹은 이들의 결합에 의해 파생되는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전적 거래 비용을 경제화하려면 자산 특수성이 필요해진다.

자산 특수성이란, 재산권 이론에서와는 달리, 거래와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교환을 원활히 진행시키고자 서로 간에 비중 있는 내구적 투자를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는 전혀 다른 대안적 용도를 위해 쓰일 수도 있고, 해당 거래를 조기 종결시킬만한 이유로 인해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 변경이나 파기를 통해 얻을 이익이 크

지 않을 때에만 자산 특수성이 확보,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특수성과 관련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만이 중요해진다.

주류 경제학적인 시장을 통한 거래나 교환에서는, 불확실성이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이 제한된다. 새로운 교환관계가 언제든 쉽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연속성을 고집하거나 행위의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반면 자산 특수성이 상당한 정도로 개입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생성됨에 따라, 처음의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지고 지속적인 적응을 요하는 사항들이 늘어난다. 행위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마련이며, 순조로운 거래·계약·교환을 위해서는 결국 자산 특수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차단시킬 수단과 방법이 필요해진다.

이때, 당사자들 간의 사적 명령에 의해 내적으로 조직화된 계약의 통치 구조인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안전장치로서 선호된다(Williamson, 1985). 이러한 통치 구조하에서는, 거래 비용은 물론 제한적 합리성까지도 경제화된다. 다수의 거래가 안정적으로 조직화되며 동시에 기회주의의 위험도 상당 수준까지 해결될 방안이 계약자들 사이에 구축된다. 그렇다면 통치 구조로서의 기업이 안전장치로 확고히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사전 계약단계를 통해 거래 비용을 경제화 시킨 자원소유자들은 이제 조직화된 기업 내에서 관계가 중심이 된 계약체계에 놓인다. 이후의 거래 비용 경제화는, 관계적으로 조직화된 계약이 다시금 생산과 위계의 조직화로 변화되는 과정에 결부된다. 기업 구성원들은 내적 조직화로 생겨난 효율적인 시행세칙(codes)에 의거함으로써, 상대방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해 적응적·연속적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시장 교환을 선택했을 때 생겨날지도 모를 시행착오는 그만큼 더 줄어든

다.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조직적 과정(과 이에 의한 개별이익)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한, 시행세칙은 계속해서 내적 조직화의 효율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거래 비용 경제학은, 내적 조직화와 사후적 거래 비용에 대한 논의를 노동 조직화에 대한 설명의 근거로까지 확장시킨다. 노동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통치 구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효율성이라는 유인이 적극 활용된다(Williamson, 1984). 기업 내의 여러 직무들(jobs)은, 구성원들이 좀 더 효율적이게끔 그리고 상호적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게끔, 통치 구조가 유인하여 생겨난 조직적 결과물이다. 동시에, 조직 내의 직무들은 인적자본에 대한 기업 특수적 투자와도 관련돼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 조직화나 직무구조 분석을 위해 기업 내의 권력 분배,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를 정점으로 한 여러 관계적 측면들이 고려돼 왔다. 하지만 계약적, 통치 구조적 차원에서 기업을 탐구하는 거래 비용 경제학은, 효율성과 기업 특수적 투자를 간과한 노동 조직화나 직무구조에 대한 논의(대표적으로 사회학과 노동조직론이 지목된다)를 매우 편협한 접근법으로 여긴다(Williamson, 1984). 권력위계나 노동-자본관계 문제는 행위의 불확실성이나 사후적 거래 비용을 경제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특정한 지위의 문제로 대체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치 구조로서 내적 조직화는 어떤 수렴된 기대들을 낳아 불확실성을 줄이는데(Williamson, 1975), 이때 수렴된 기대들은 어느 한 사람이 조직 성원 모두를 위한 의사 결정자가 되게끔 만든다. 물론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기회주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위험은 있다. 하지만 내적 조직화가 이러한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통치 구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 위계적 지위는 항상 효율적인 적응과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거래 비용 경제학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집합적 조직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권력의 불균등 배분이나 수직적 통합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에 각각의 직무나 지위가 갖는 자산 특수성이나 기회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 내적 조직화 못지않게 노동 조직화 역시, 통치 구조의 확립에 따른 사후적 거래 비용 경제학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 기업 내의 여러 사업 부서들(divisions) 역시 상호적 이익 증진을 위한 수직적 통합의 결과로 여겨지며, 통치 구조와의 긴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동의 이윤을 증진시키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집결되는 지점으로 규정된다.

내적 조직화는 한편에서는 유인을 통해, 다른 한편에서는 구성적(constitutional)이고도 협력적 과정을 통해 계약·거래·교환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분쟁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까지도 해소시킨다. 물론, 하나의 거래 혹은 관련된 여러 거래들의 전체가 내적 조직화에 입각한 수직적 통합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항상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유연성이 소실되고 많은 관료제적 불능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윌리엄슨은, 내적 조직화에 의한 수직적 통합이 인간적 계산 용량(computational capacity)의 결함을 보충해주고, 사전적·사후적 거래 비용의 경제화를 꾸준히 가져온다. 바로 이것이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경제학과 그 기업론의 핵심이다.

#### 4. 양대 이론의 의의와 한계

신제도주의 기업론의 성과는 코즈가 정식화시킨 거래 비용론에 기초하여, 정통 경제학의 비현실적, 추상적 설명방식을 생산적으로 비판한 데 있다.<sup>8)</sup> 현실의 경제활동 참여자나 기업의 의사 결정자 모두는, 신고전파의 이념형적 이론이 고려한 몇몇 변수 향 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

한 요인들에 의해 제약받는다라는 사실이 부각됐다(Furubotn, 1990). 이러한 제약을 걷어내기 위한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생겨난다는 지적이 신제도경제학의 기본 출발점이다.

부가적 비용의 발생은 계약 과정에 있으므로, 재산권 이론이나 거래 비용 경제학은 이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단순히 거래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왜 그러한 비용이 생겨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러한 비용은 관련 제도들에 어떠한 변형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 했다. 이로써 기업과 조직에 대한 경제학 이론이 정교한 형태로 다듬어지게끔 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재산권 접근법은 정교한 재산권에 대한 사회 성원들의 필요나 요구가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강조했고, 자원들의 가치가 최고로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재산권이 시장에 의해서만 확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 탓에 경제조직에 대한 연구는 불필요해졌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잇따랐다(Williamson, 1990). 지나치게 사전적 유인에 편중된 설명방식은 재산권 이론이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골재였다.

거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사전적 계약 과정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계약과 재산권에 다시금 의존해야 한다는 동어반복적 논리

---

8) 대략 1960년까지도 주류 경제학은 기업을 주로 기술이 중심이 된 생산방정식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때 기술은, 생산요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총 생산비용을 줄이는 산술적 방법과 동일시된다. 기업 활동은 투입물 혹은 생산요소의 조합과정으로 여겨지며, 노동과 자본이 가장 중요한 변수 항목으로 설정된다(Coombs et al, 1987). 따라서 신고전과 기업론은 주로 가격과 산출 문제에 천착해왔고 그러다 보니 단일한 생산 틀, 단일한 이상적 제도에 기초한 교환이 모든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교환은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 시장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 모두의 부정이라는 매우 추상화된 가설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가 재산권 이론에 관철된다. 이 때문에 재산권 이외의 개념 장치(예컨대 거래 비용이나 암묵적인 계약 강화 메커니즘)는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해진다. 재산권 이론의 비교적 최근 연구들도<sup>9)</sup>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계약관계(the nexus of contract)가 어떠한 양식으로 발현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만 양산할 따름이다.

계약 문제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거래 비용의 경제화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정밀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철칙을 통해, 거래 비용 경제학은 소유권이나 사전적 유인에 치중된 재산권 이론의 논의를 사후적 지점으로까지 이끌었다. 이로써 계약의 체결 과정이 거래 비용의 경제화를 통해 생산과 교환을 지배하는 기업과 조직의 발현과 정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해냈다.

하지만 거래 비용 개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지 않음으로써, 상식에 호소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험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경험적 검증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보니, 경제 현상을 단순히 정당화·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의심도 샀다.

거래 비용 경제학은, 생산의 연속적 단계들이 분리 가능한 계약에 의해 채워진다고 여겼고, 거래 비용의 경제화로 생산의 각 단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산요소 소유자들 간의 상업적 계약이 우선시됨으로써, 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 네트워크의 다소 확장된 혹은 상이한 형태에 불과해졌다. 자체로도 하나의 통치 구조인 시장을 전제로 기업이라는 통치 구조를 논하다보니, 거래 비용 경제학 자체가 결국 주류 경제학의 부수적·보완적 논의라는 인상을 줬다. 이

---

9) 1990년대 초까지의 재산권 이론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De Alessi(1990)를 보라.



로써 제도의 비교 분석은 시장이나 위계 조직의 선택 문제로 한정돼 버렸고, 이조차도 후자로의 일방적 귀결이라는 뻔한 결말로 이어졌다.

사회의 많은 교환 행위가 계약관계에 의해 지배되기는 하지만, 기업 활동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거래 혹은 계약 결정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기업은 거래 비용 경제화나 자산 특수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다차원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특성들이 내재화·조직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현실적 목표는 제대로 계산하기도 힘든 거래 비용 경제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노동자·경쟁기업·국가에 대한 지배력 및 대응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재산권 이론이나 거래 비용 경제학은 결국 기업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하고도 비현실적인 면들이 있다. 기업의 존재이유나 본질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의 문제 제기는 분명 참신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적 관계나 과정뿐만 아니라 외적 제도나 사회와 맺는 관계와 과정들을 제대로 포착할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론이 필요하다.

### III. 기업에 대한 진화적 접근법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 결정의 조직화 양식인 기업(Knight, 1971), 인간과 마찬가지로 합리성의 한계에 처해 있기에 만족할 만큼의 적응력 배양에 치중하는 조직적 행위체로서의 기업(Simon, 1964)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계승하면서, 기업과 제도에 대한 진화적 접근법이 등장했다. 진화적 접근법은, 경제활동의 실체인 기업을 제도적 주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리고 진화 생물학과 연동시켜 분석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세 가

지 이론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 1. 호지슨의 비결정론적 진화주의

진화적 분석 전략이 경제학 내에서 꽤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음을 강조하면서 호지슨은, 생물학적 원리를 적극 채용한 인간·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도모한다(Hodgson, 1993; 1999). 호지슨은 개인을 사회와의 끝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주체로 파악한다. 또한 하나의 총합적 실체보다는 조직화된 실체와 그것의 유기적 성격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생물학자 모건(C. L. Morgan)의 발현(emergence) 혹은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발현적 속성이란 복잡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예측이 어렵고, 비부가적(non-additive 즉, 단순 합산과는 무관한) 결과물로서, 어떤 최소 단위 혹은 단일 차원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을 둘러싼 현실 세계 역시 다양하고도 다차원적인 위계와 이의 발현적 속성에 의해 구성된다. 호지슨은 이러한 설명 방식을 층화된 존재론(layered ontology)으로 규정하고, 생물학을 넘어 모든 사회과학이 취해야할 궁극적인 지향으로 설정한다(Hodgson, 1999).

개인을 포함한 여러 제도들의 중층적·다차원적 성격과 이들의 유기적·사회적 배태성을 중시하므로 호지슨은, 기업의 본성 역시 특별한 창의성이나 기업가의 역할보다는, 고도의 충성심과 신뢰가 생겨나도록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구조화하는 기업의 능력에서 찾는다(Hodgson, 1988). 기업 내 여러 집단과 개인의 경쟁력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용량(capacity)이 기업의 존재, 경계, 진화에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공통된 요인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제한적 합리성, 탐욕, 비공리적 성향에서 비롯되는 마찰을 일으키지만, 기업 내의 공생적 관계가 창출되는 역동적 과정에 순조롭게 편입됨으로써 조직적 용량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기업 내에서 장기적으로 보존 및 전승된다는 사실 역시 기업의 중요한 본질을 이룬다. 문화적 전수는 집단과 개인의 학습(learning)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의 생명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무의 처리 방식 및 사고 습관이 이러한 학습의 주된 내용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으로부터 기업 조직 전체의 진화를 결정짓는다.

기업은 재산권이나 거래 비용 같은 법적·공식적 과정뿐만 아니라, 일원적·통합적 문화를 일궈내는 업무 처리 방식이나 조직적 사고 습관 같은 비공식적 학습 과정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적 행위나 여타 사회제도로부터 파생되는 불안 요인들을 진정시킨다. 학습은 기업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구성원들의 지식과 의사소통이 조직적 차원에서 원활히 교류될 때에만 유의미해진다. 특정 기업에 전유된 실무적 지식과 학습은, 개별 구성원이 아닌 조직적 과정 속에서만 발현 및 숙성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개별적 생산자들이 도태되는 것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보호 및 증진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갖추기 때문이며, 바로 이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Hodgson, 1996: 258).

호지슨은, 기업이나 제도에 대한 진화적 분석 과정에서 개인이나 유전자와 같은 준원자적(sub-atomic) 요소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결정론적, 환원론적 태도를 거부한다. 그래서 호지슨은 발현적 속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주류 경제학의 역학적(mechanistic) 관점이 생물학적 유기체론(organicism)에 의해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 호지슨은 지속적이고도 주기적인 신중

(novelty)의 등장과 독창성(creativity)의 구현을 중요시 한다.

호지슨이 신중과 독창성 그리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개방 체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 현상도 개인의 의견과 행위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중이나 독창성, 발현적 속성이 생겨나는 이유를 몇 가지 공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지나친 축약화와 비현실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보다 올바른 해결책을 위해서는, 모든 환원론적·수학적 공식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철학·사상사·경제사에 의거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즉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산업 환경·경제정책과 같은 제도들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를 누적시켜야 한다(Hodgson, 1999). 그리고 진화적 과정이 지니는 특성과 이유 없는 이유(uncaused cause)들이 창출해내는 비매개적 과정들에 치중할 필요도 있다.<sup>10)</sup>

호지슨의 위와 같은 논의들은 비록 구체적인 분석 도구 제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현상에 대한 진화적 접근의 유용성 그리고 사회학과의 접목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신제도주의 특히 거래 비용 경제학에 대한 진화론 차원의 비판을 통해 제도주의 내의 진화적 접근법이 지니는 혁신성을 잘 보여준다.

## 2. 넬슨과 윈터의 진화경제학

생물학과 유전학의 접근방식을 산업 환경과 기업 행태에 대한 조망에 직접 활용하면서, 각각의 변화와 발전이 내외부적인 누적적 상호

---

10) 호지슨이 말하는 발현은 복잡계 및 혼돈 이론의 성과에 의거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적·의도적·의지적 사고와 행위는 한편으로는, 인과성을 밝히는데 기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한 접근도 가능케 한다.

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밝히려는 진화 경제학이 넬슨과 윈터에 의해 제기된다(Nelson·Winter, 1982). 특히 기업이 갖는 경쟁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이것이 발현되는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이들은, 기업의 역량(capabilities)과 행동(behavior)에 대한 진화 모델을 통해, 기업의 궁극적 본질이 의사 결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기업의 이윤 창출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기업과 구성원들의 이해 모두는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이해가 분리되기란 쉽지 않으며, 이윤 창출을 위해 양자의 이해가 절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적 과정은 결국 기업의 내부 의사 결정에 의해 완수된다.<sup>11)</sup> 이윤과 이윤의 창출 가능성은 기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일 뿐이므로, 기업 내에서 많은 목표들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어떻게 조정·해결되는가가 기업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이렇듯 기업을 의사 결정의 실체로 내세우면서 넬슨과 윈터가 강조하는 기업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지식에 관한 것이다.

기업은 사실상 여러 기술적 지식<sup>12)</sup>을 통해 생산적 역량을 외화시킨 제도이므로, 기술적 지식이 기업의 내외적 활동과 의사 결정 속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가 중요해진다. 넬슨과 윈터는, 생물학에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루틴(routine)에 의해 기술적 지식의 실질적인 활용과 발전이 기업의 안팎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루틴이란 기업의 모든 규칙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행위 유형들로, 생산적·조직적 활동과 절차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Nelson·Winter,

---

11) 이러한 주장에 있어 넬슨과 윈터는 사이어트와 마치(Cyert·March, 1992[1963])의 연구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12) 이들에게 기술적 지식은 단순히 생산적 장비를 다루기 위한 기교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기업 내의 아주 소소한 관례나 비공식적 업무에 대한 이해로부터, 절차와 규칙에 따른 공적인 직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체계적 지식까지 포괄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업 내의 루틴적 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 학습된다는 것이다.

1982). 루틴은 이미 선행했던 루틴들로부터 파생된 일종의 역사적·진화적 산물이자, 특정 시점에서 특정 기업의 모든 활동과 절차들이 종합화된 결과이다. 루틴은 의사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숙련(skill)의 형성과 습득에도 개입돼 있다. 숙련은 매일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통해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므로 루틴의 체득 과정과 맞물려 있다. 루틴을 따르는 활동 모두는 특정 기업 내에서 암묵적(tacit) 지식 형태로 전수되며, 의사 결정과 숙련을 체득하는 최소의 그리고 최종적 단위가 된다.

루틴은 조직원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일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직원들의 이해와 갈등이 실현 및 봉합될 길을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루틴은, 예기치 못한 기회주의나 갈등, 기업과 조직 활동의 성과가 퇴조될 가능성, 불확실한 세계와 환경이 초래할 위험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요인들은 기존 루틴의 관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록인(lock in)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록인을 해소시키기 위해 기업은 경우에 따라 조직 혁신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넬슨과 윈터는 조직 혁신이 생물계의 돌연변이(mutation)와 같고 대안적 루틴에 대한 탐색을 통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Nelson·Winter, 1982). 탐색 역시 루틴의 일부지만 일반적인 루틴과 다르게, 대안적 루틴에 대한 확률적 검토를 통해 부분적인 수정으로부터 급격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안들을 찾고자 애쓰는 조직적 활동이다. 기업의 장단점은 결국 (탐색을 포함한) 루틴을 통해 드러나며, 각 기업의 조직적·경제적 역량 역시 루틴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의 활동이란 면에서 루틴은 이윤 창출과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지만, 오로지 극대화·효율화된 이윤추구를 위해서만 작동하지는 않으며 그래야만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루틴은 진화적 선택 환경과 일종의 친화력을 발휘하고 시기적 적합성을 드러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선택적 진화성과 시기적 적합성은 탐색적 루틴에 의거하는 것이지만, 탐색적 루틴의 추구만이 생존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상황에 따라 성공한 기업의 루틴을 모방, 복제함으로써 생존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다.

현실의 기업들은 이렇듯 이윤 극대화나 효율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먹구구식 경로를 추구하기도 하며, 선택적 환경은 다만 여러 경로들 중 어느 하나를 지배적 위치로 끌어 올릴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은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역사적 궤적을 통해 기업과 루틴의 진화를 계속해서 이끈다(Nelson·Winter, 1982).

기업의 대내외적 활동을 이렇듯 루틴에 집중시켜 설명한다는 점에서 넬슨과 윈터의 진화 경제학은 호지슨이 기피했던 일종의 결정론적 성향을 갖는다. 하지만 루틴은, 호지슨도 인정한 바 있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형식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활동을 총체적이고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앞서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분명코 기업의 존재 이유나 형성 과정에 관심이 치우쳐 있다. 이와 달리 넬슨과 윈터의 진화 경제학은, 제도로서 기업의 기초적 단위가 무엇이고 기업의 조직적·경제적 생존 방식이 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론적, 경험적 검증을 통해 밝히려 한다. 생물학적 진화론은 단순한 비유로써가 아니라, 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적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기술의 발전, 산업부문별-기업별 경쟁, 정책 등이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증 속에서 진화론적 원칙은 더욱 철저히 관찰된다. 루틴과 탐색 그리고 경로의존성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진화론적 논의는, 효율성이나 이윤 극대화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의 운영 및 통치 구조의 생성까지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 3. 동태적 역량론의 진화적 기업관

넬슨과 윈터의 진화 경제학은, 이후 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략 경영론 분야의 자원 기반(resource based) 접근법과 결합돼, 또 하나의 중요한 진화론적 흐름을 일궈낸다. 자원 기반 접근법도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분석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루틴 개념은 자원 기반 접근법에 와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ies)개념으로 전환된다(Foss et al, 1995).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경제와 시장 영역에서의 경쟁 우위로 전환되는 과정을, 자원 기반 접근법 역시 제도적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풀이해낸다. 기업 성과의 차이는 우선, 시장 장악력이 아닌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그것의 효율성 격차에서 생겨난다. 기업의 내적 역량과 자원은 희소성을 띠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 및 유지되므로 거래나 모방이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렌트 추구가 원활해 지려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갖춰져야만 한다(Amit·Schoemaker, 1993).

이윤의 창출 가능성은, 기업이 핵심 경쟁력을 무기로 산업부문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제도적 방편들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채택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역사적·지속적·점증적인 경험과 체질적 변화를 통해 달성된다. 이때, 기업의 역량과 자원 모두는 정태성과 동태성 사이의 긴장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긴장상태는 경쟁이라는 여건 속에서 기업이 내적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적 요소들과 내부적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끊임 없이 갱신되도록 뒷받침한다.

자원 기반 접근법 중 이러한 긴장 상태에 치중하면서 넬슨과 윈터의



진화론적 성과를 받아들인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동태적 역량론을 통해 가시화된다. 동태적 역량론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조응하고자 기업들이 보이는 내외부적 경쟁 방식의 검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진화적, 자원 기반적 논의들이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모방이 곤란한 조직적·기능적·기술적 숙련의 전략적 관리 방식에도 초점을 둔다.

동태적 역량론은, (직접적으로는 변화된 경제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태성을 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개선시켜 변화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 혹은 용량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역량이란 환경 변화에 걸맞게 기업 안팎에서 우위를 점한 숙련·자원·기능을 적절히, 지속적으로 조정·조율하는 경영의 역할을 가리킨다.

경쟁에 기초한 현대 전략 경영론의 성과를 반영하여, 동태적 역량론은 기업의 활동을 다음과 같은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우선은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기업의 내적 성장을 위한 본바탕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학습과 성장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 각자가 기업의 발전과정에 병렬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기업을 지식과 정보의 실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양자 간 차이 및 이들에 결부된 불확실성·비대칭성 같은 만성적인 문제들이 초래하는 궁·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지식과 정보의 저장고로서 기업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진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는 모두 암묵적 자원이자 기술로서, 개인이 아닌 전체 기업의 조직적 구조 및 관계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운영 과정, 시장 지위(market positions), 확장 경로(expansion paths)에 대한 분할적 분석에 의해 해답이 마련된다(Teece·

Pisano, 1998). 첫째로 과정은 루틴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내적 실무수행 및 학습 양식을, 둘째로 지위는 기업의 기술적·지적 재산 그리고 공급자나 수요자와 맺는 관계의 특성을, 셋째로 경로는 활용 가능한 전략적 대안들이나 여타 기회들이 특정한 기업들과 맺는 친화성을 밝히기 위한 검증 장치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각 기업은 결국, 생산품의 설계와 질 그리고 과정의 효율성이란 차원에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조합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의 창조적 파괴에 의한 개선뿐만 아니라, 선두 기업의 모방을 통해서도 추격을 모색하며 이 역시 기업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Teece·Pisano, 1998).

애초 동태적 역량론의 핵심 과제는, 하이테크 산업의 지구적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해당 기업들이 경쟁 우위와 이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 유지하는지를 분석할 보다 설득력 있는 패러다임의 제시였다(Teece·Pisano, 1998). 따라서 동태적 역량론의 논의들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 내용보다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경제학적 혹은 사회학적 설명을 더 많이 내포한다. 결국 동태적 역량론은 벨슨과 윈터의 진화적 접근법과 교접함으로써 그리고 양자에 갖든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좀 더 과감히 드러냄으로써 기업의 제도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살핀 세 가지 진화 제도주의적 접근법은 기업을 일종의 복잡한 제도 혹은 지식 축적에 의거한 조직으로 설정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지점에서 생겨나는 경쟁력을 특별히 과정에 주목하여 파악하고, 기업 역량의 차이가 그 안팎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진화제도주의는 단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처한 경쟁 상황이나 경제 환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발전된 시각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기업 이외의 제도들과 기업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피드백은 애초 의도했던 것보다 등한시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논의들이 제시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적·해석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sup>13)</sup> 진화 제도주의 자체가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학과의 상호보완적이고도 절충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사회경제적 이론 패러다임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학이 진화 제도주의적 성과와 결합될 만한 계기들은 어디에 있을까?

#### IV. 맺음말—사회학과 진화적 접근법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해

사회학 내에서 조직이나 기업과 같은 제도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내생적 변수로 다루어진 것은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나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매개로 신제도주의적 경향을 흡수하려는 시도가 실버맨을 통해 처음 이루어진다. 실버맨은 개인들의 행위 외에, 조직이나 제도 같은 사회적·객관적 실재 속에도 의미가 내재하는 데 주목한다(Silverman, 1971). 실버맨 이후에도 주로 조직이론을 통해 사회학 내에 신제도주의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

금연 같은 문구, 기업의 특정 부서, 의사라는 직업(혹은 지위) 등은 모두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의무나,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시하

---

13) 진화 제도주의의 성과와 함께 단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들은 Dosi(2000)에 집약돼 있다.

는 생활의 사실이 담겨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도이다(Meyer·Rowan, 1977). 이렇게 등장한 신제도주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사상이나 행동 속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규범과 규칙들이 사회적 의무와 실제로 자리 잡는 과정을 제도화로 규정하고 이를 분석의 중심에 둔다.

여타의 조직적·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인된 수단이라면, 심지어는 각종 기술들조차도 하나의 제도 혹은 제도적 산물이 된다(Meyer·Rowan, 1977). 특정한 활동이나 행위가 사회적 승인을 거쳐, 공식적 구조로 거듭나는 것 역시 제도나 제도화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제도의 탄생은 이를 승인할 사전적인 제도를 전제로 하며, 사전적 제도를 거쳐 정당화가 확보되는 과정이야말로 합리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제도가 미시적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조직이나 기업이 보다 상위의 관계적 체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제도화를 이끌기도 한다. 여기서도 미시적 과정을 통해 조직이나 기업들 사이의 내적·수평적·공동체적 관계의 체계가 생겨나지만, 새로이 거시적·외적 차원에서 수직적·위계적 관계의 체계가 형성된다. 이것은 조직이나 기업들 상호간의 관계적 제도 혹은 사회적 섹터(social sector)로 발전해가며, 조직과 기업을 지원 혹은 제재하는(정부, 법률 같은) 새로운 제도적 주체들도 개입한다(Scott·Meyer, 1991). 사회적 섹터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제도적 관계, 사회적 유대, 조직 공동체는 주어진 환경을 재구성하고 섹터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진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신제도주의 사회학은 행위와 구조적 차원 모두에서 제도를 설명하고자 애썼고,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진화론적 근거나 논의를 채택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런데, 신제도주의 사회학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진화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사회학 이론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

렵지 않다.

인간은,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겨나는 환경의 돌발성에 적응해왔다. 이를 위해 인간은 외적 경계를 갖춘 비교적 폐쇄된 사회적 실체들을 형성해내는데, 버거와 루만은 이것을 제도화 과정으로 규정한다(Berger·Luckman, 1982). 제도의 외면화와 객관화 과정에서 사회 성원들은 내면화 과정 즉 학습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들을 체득한다. 이로써 제도는 일관성 있는 합법적 실체로 인정받으며, 해당 제도와 관련된 지식이 제도적 관계를 통해 재생·학습됨으로써 더욱더 예측과 통제가 용이한 관계를 구성한다. 대안적 제도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지며, 이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 속한 제도들의 확률분포에 의거한다(Berger·Luckman, 1982).

습관이나 학습, 상호 작용을 통한 제도의 등장에 대한 이들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찍이 베블렌도 진화 생물학적 논의를 사회학적, 경제학적 연구 주제들에 직접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제도주의가 등장하는데 도화선이 될 만한 연구 성과들을 양대 학문에 남겨 놓는다(Hodgson, 1999). 베블렌은 습관과 루틴의 세습성 및 지속성, 게으른 호기심(idle curiosity) 같은 개념을 통해 독창성과 신중의 역할을 강조한다. 습관으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단절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장치로 진화 생물학 개념이 직접 차용된다. 이를 테면 특정 산업 부문에서 제도들 사이의 선택적 적응(selective adaption) 및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 산업 발전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Hodgson, 1999).

루틴과 학습, 대안적 탐색이나 돌연변이성 등은 기업의 내적 역량 혹은 경쟁력 우위를 설명하기 위한 진화 제도주의의 중요한 이론적·개념적 장치들이다. 사회학 내에서도 그러한 주제들이 조직이나 기업 외에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살피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은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진화적 접근법을 가진 사회학이나 경제학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분석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안목으로 사회적, 경제적 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만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업과 이를 둘러싼 사회제도들 사이의 상호적 해석과 반추 과정, 좀 더 폭 넓게는 경제 현상 일반에 대한 설득력 높은 이론 구축을 위해, 진화적 제도주의와 사회학 사이의 상호 접목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이나 신제도주의의 관성화된 학문적 경향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우선적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균, 1994, 『진화론적 제도론』, 『사회비평』 제12호: 9~27, 나남출판.
- 버거·루만(Berger, P. L. & T. Luckman), 1982, 『지식형성의 사회학』, 박충선 역, 홍익사.
- 송현호, 1998, 『신제도이론』, 민음사.
- 에거트슨(Eggertsson, T.), 1996, 『경제행위와 제도』, 장현준 옮김, 한국경제연구원.
- 유홍준, 1997, 『경제제도의 사회적 구성: 신경제사회학의 관점』, 『사회과학』 제36권(1): 23~47,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Alchian, A. & Demsetz, 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2: 777~795.
- Alchian, A., 1965, "Som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IL Politico*, XXX(4): 816~829.
- Amit, R. & Schoemaker, P., 1993, "Strategic Assets and Organizational R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1): 33~46.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IV(November): 386~405.
- Coombs, R., Saviotti, P., Walsh, V., 1987, *Economics And Technological Change*, U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yert, R. & March, J., 1992[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Malden/Oxford, Blackwell.
- De Alessi, L. D., 1990, “Developments of the Property Rights Approach”,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6: 6~23.
- De Alessi, L. D. & Staaf, R. J., 1989, “Property Rights and Choice” in Nicholas Mercurio(ed), *Law and Economic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iMaggio, P. J. & Powell, W. W., 1991,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si, G., 2000, *Innovation, Organization and Economic Dynamics*, Cheltenham/Northampton, Edward Elgar.
- Foss, N., Knudsen, C., Montgomery, C., 1995, “An Exploration of Common Ground: Integrating Evolutionary and Strategic Theories of the Firm” in Montgomery, C.(eds), *Resource-Based and Evolutionary Theories of the Firm: Toward a Synthesi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urubotn, E. G., 1990, “Different Approaches to the Economic Analysis of Institutions: Some Concluding Remark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6: 226~232.
- Furubotn, E. G. & Richter, R., 1991,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übingen, Texas A&M University Press.
- Grossman, S. J. & Hart, O. D., 1986,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4): 691~719.
- Hodgson, G., 1999, *Evolution and Institution: On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s*, Cheltenham/Northampton, Edward Elgar.
- Hodgson, G., 1996, “Corporate Culture And The Nature of The Firm” in Groenewegen, J.,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Beyond*, Boston/Dordrecht/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odgson, G., 1993, *Economics and Evolution: Bringing Life Back into Economic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night, F., 1971[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yer, J.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Nelson, R. & Winter, S.,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Pejovich, S., 1990, *Th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Towards a Theory of Comparative Systems*, London, Kluwer Academic Publications.
- Scott, W. R., Meyer, J. W., 1991, "The Organization of Societal Sectors: Propositions and Early Evidence" in DiMaggio & Powell
- Simon, H., 1964, "On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Go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9(1): 1~22.
- Silverman, D., 1971, *The Theory of Organizations: A Sociological Framework*, New York, Basic Books.
- Swedberg, R., 1990, *Economics And Sociology - Redefining Their Boundaries: Conversations With Economists And Sociologi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ece, D. & Pisano, G., 1998, "The Dynamic Capabilities Of Firms: An Introduction" in Dosi et al(eds), *Technology, Organization, And Competitiveness: Perspectives 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O. E., 1990, "A Comparison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Economic Organization",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6: 61~71.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The Free Press.
- Williamson, O. E., 1984, "The Economics of Governance: Framework and Implication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0: 195~223.
- Willi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The meaning and prospect of evolutionary approaches to the capitalist corporations**

*Kob, Hyung-Myun.*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agnoses the academic fruits of new and evolutionary institutionalism in economics and suggests a more discerning socio-economic theory can be built up by mixing evolutionary perspectives in sociology, economics, and strategic management theories. Ever since the publishment of R. Coase's historical work, new institutionalism has been concentrated on transaction, exchange, contract and corporations. However, new institutionalism still leads almost all theoretical efforts in non-orthodox economics into the analysis of property rights and transaction costs. The main subject of new institutionalism, the capitalist corporations are veiled by the explanations of contractual courses, asset specificity and internal hierarchical governance. Centering on corporations, evolutionary institutionalism give more attention to the internal, external, institutional and social processes. Therefore, sociology and evolutionary institutionalism have to make an effort and positive contribution to establishing another productive paradigm.

Key Words: new institutionalism, evolutionary institutionalism, evolutionary and sociological theories of corporations.

고형면은 고려대학교 문과대 사회학과에서 수학하며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대적 소비의 사회적 기반」(2008), 「한국의 신용카드산업과 금융 정보통신기술」(2006) 같은 연구 논문이 있고, (공)저서로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2007)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경제·문화/예술·정보사회학 및 사회발전론이다. E-mail: colchester96@daum.net

[2007. 9. 16 투고; 2007. 11. 30 수정; 2007. 12. 6 채택]